

〈토론문 1〉

김보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로스쿨)

1. 「통일시대 청년세대의 역할 : 사회문화 영역의 인적교류를 중심으로」에 대해

이지원의 「통일시대 청년세대의 역할 : 사회문화 영역의 인적교류를 중심으로」는 정치체제의 통합과 달리 사회문화적 통합이 비교적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고 청년세대가 지니는 활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젊은 층이 통일문제에서 지녀야 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규정하려 시도하였다. 청년층의 역할이 남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가능성으로서 기능할 것인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방안이 매우 추상적인 중요성의 언급에 그치고 있어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소의 중요성과 청년세대의 중요성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그 둘의 상관성, 즉 사회문화적 부문에서 청년층이 청년층 아닌 자들과 구분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내용상 적절하게 다뤄진 바가 없다. 한 예로 논문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 청년층이 기여한 부분으로 설명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대규모 동독 이탈’ 정도일 뿐이다.

자유로운 사회문화적 교류가 남북 간 이질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사회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역시 결여되어 있다. 북한은 일제강점기 종료 직후인 1945년부터 이미 경제와 사회·문화 등의 비정치적 분야를 소위 ‘정치체제’에 의도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프로파간다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북한문화의 ‘사회주의적 정치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문화적 교류 방안 역시 적절하게 구상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북한의 정치 레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남북 간의 민간 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사회문화 부문이 사회주의적 경직성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한이 북한

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나, 그 변화란 것은 체제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과 반대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북한 정권은 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가 지금까지 순수한 민간인 차원보다는 주로 전문가와 지식인 집단(예: 통일민족작가대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청년 세대가 직접 사회문화적 교류의 중심에 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교류의 목표가 내용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인식 변화를 꾀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청년 세대는 새터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 간의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통일 사안에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들 간의 교류와 통합은 북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과 그릇된 선입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또한 새터민들이 남한에 통합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고려해볼 만한 대안일 것으로 본다.

2. 주진욱의 「통일준비와 탈북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주진욱의 「통일준비와 탈북청년들의 역할」은 청년층 새터민이 통일의 가교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말하고자 한다. 논문은 초반부에서는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한사회에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년층 새터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논문은 새터민 청년층이 새터민 아닌 남한 청년층에 비해 어느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지, 이에 대한 논지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고학력 탈북 청년층의 규모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 원론적 차원에 그친 것이다. 한 예로 논문은 작년 4월 기준으로 탈북자 출신 중 북한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가 1553명이라 지적한다. 이는 북한 기준에서 분명 매우 높은 학력이며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 할 것이나 이것이 남한 기준에서 얼마나 높은 학력이라 할 수 있는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학문 풍토나 전문 용어 등의 상당한 차이 때문에 북한에서 취득한 학위가 남한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 능력보다도 하등한 직장에 취업하는 새터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필요성 등이 제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새터민의 수가 1100여명을 상회하며 한국 내 박사학위 소지 새터민이 10명이라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숫자가 한해 6000여명(해외유학생 제외한 수치) 수준인 남한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고학력 새터민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양적 차원보다는 질적 차원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본다. 즉 탈북 출신자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남한출신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인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도 북한 정치, 북한 사회, 북·중 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서 새터민 학생들이 남한출신의 학생들보다는 강점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는 새터민들의 남한적응을 돕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선배 새터민들의 장점 등이 언급되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한편 4가지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청년세대의 역할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다뤄지지 못해 논지 전개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이다. 이에 더하여 논문의 제목이 「통일준비와 탈북청년들의 역할」인 점을 고려할 때 비(非)엘리트 새터민 청년들의 역할도 논의되었다면 보다 포괄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터민 청년층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적극적이나 편향되지 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그 목표의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